

2018년 4월 28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북한을 위한 세계특별금식기도

4월 28일 토요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북한을 위한 세계특별금식기도에 동참하셔서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지속된 북한을 위한 기도회와 예배에 이어, 이제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금식으로 북한 주민을 지배하는 악의 영을 무너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2018년 1월, 오랫동안 주체사상을 연구해 온 유명 학자이자 주체 사상의 실체를 낱알이 파헤친 저서 '주체: 북한의 국가종교에 대한 기독교적 연구'의 저자인 토마스 벨키 박사는 미 의회 종교자유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을 물리치는 길은 기도와 금식 밖에는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마태복음 17장 21, 새번역)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벨키 박사는 미국 역사 가운데 국민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으로 부르짖었을 때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던 일(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1814년 11월 6일을 '회개와 기도, 금식의 날'로 지정하고 간구한 결과로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각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금식의 날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고통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무기라고 믿습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점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개역한글) 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에베소서 6장 12절, 개역한글)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략적 시기를 맞이하며: 4월 28일은 북한 인권 운동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2004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던 북한자유 날이며 제 15회 북한자유주간(4월 28일~5월 6일)의 시작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북한자유 날 행사는 2004년 4월 28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으며, 한반도 밖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행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미 국회의원들이 이 날을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행사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고통에 중점을 맞춘 첫 번째 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전세계로 퍼져나가 일본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4월 29일부터 한국 파주 일대에서 열리는 북한을 위한 40일간의 예배인 '2018 뉴코리아 개더링' (<http://www.newkoreagathering.com/>) 과 5월 5일 미국 국가 기도의 날과도 그 시기를 같이 합니다. 또한 5월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에 자유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4월 28일을 북한을 위한 세계특별금식기도의 날로 정하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와 금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토마스 벨키 목사 (전 미 해군 대령, '주체' 저자)

밥 폭스 목사 ('풍요로운 삶과 교제' 교회, '미국의 DNA를 치료하다' 저자)

수잔 솔티 회장 (북한자유주간 대회장, 서울평화상 수상자)